

강천산 야간 관광명소 탈바꿈

순창군, 1.3km 구간 산책로 영상 콘텐츠 구축...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

순창의 대표관광지 강천산이 야간 관광명소로 탈바꿈 한다. 군은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이 순항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험운영에 들어 갈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38억여원이 투자되며 매표소에서 천우폭포까지 1.3km 구간 산책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빛과 스토리를 가미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순창을 배경으로 지어진 조선중기 고전소설 '실경산전(중종 11, 채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강천산의 공간에 맵핑, 홀로그램 등 미디어아트 영상과 경관조명으로 이야기 속 장면을 구성할 계획이다.

해마다 120만명 정도가 찾는 강천산 관광을 야간까지 확대해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강천산이 당일 코스 관광지에서 1박 2일 체류형 관광지로 변신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야간 명소화 사업의 공간적 구간은 매표소에서 천우폭포까지 1.3km 구간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이 내년 상반기 시험운영에 들어 갈 계획이다.

이다. 안전한 산책로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병풍폭포, 천우폭포 등 4곳에 메인 콘텐츠 영상과 현실에 가상의 이미지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AR포토존, 인터랙티브 반응형 영상 등을 구축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매표소 입구에 나뭇잎 조형물인 단

월문이 설치돼 밤 숲의 아름다움을 한껏 끌어올리고 특히 설공산전을 활용한 콘텐츠 영상이 전 구간 곳곳에 설치돼 흥미와 감성체험을 제공하며 강천산의 또 다른 아름다움과 감동의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군은 최대한 사업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에 시험운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출산장려금' 명칭 '출생축하금' 으로 변경

남원시,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1,000만원 분할지급

남원시(시장 이화주)가 그동안 신생아 출생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지난 29일 개정 공포했다. 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정부와 지원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기 위하여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출산'이라는 용어를 '출생'으로 변경

하고, 기존 출생 순위별로 경제적 지원을 하던 '출산장려금'의 명칭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예비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기형아 예방을 위한 중진검사 등 16종의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아기를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전통의약적인 방식의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과 체외수정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 중인 임신부에게는 엽불립과

주차증을 발급하고,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모기형아 검사와 함께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 대하여는 의료비지원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신생아 출생 후에는 '아기 남원 시민증' 발급, '탄생 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생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관촌면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

관촌면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이 지난 29일 관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은 강두천 관촌면장 및 각 지역 자율방범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광우 대장이 이임하고 변중구 대장이 새로 취임했다. 이임한 이광우 대장은 지난 임기동안 관촌면의 우리동네지킴이로 지역

의 방범활동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봉사활동 및 각종 캠페인에 지역사회로부터 모범이 되어왔다. 변중구 신임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나의 봉사가 민민의 행복과 웃음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촌면 주민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1950년도 6.25가 한창이던 금화전투에서 조국을 위하여 산화하신 고 황의완 병장의 화랑무공훈장과 메달을 국방부 장관을 대신하여 양상구 동계면장이 동생 황의문 어르신께 전수했다.

6.25 전사자 고 황의완 병장 화랑훈장 전달식

최근 순창군 동계면사무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1950년도 6.25가 한창이던 금화전투에서 조국을 위하여 산화하신 고 황의완 병장의 화랑무공훈장과 메달을 국방부 장관을 대신하여 양상구 동계면장이 동생 황의문(84, 주월마을) 어르신께 전수한 것이다. 고 황의완 병장이 생존하셨으면 올해 89세의 나이이며, 열기 왕성한 23세의 나이로 조국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귀중한 목숨을 나라

를 위하여 바친 것이다. 동생 황의문 어르신은 "형의 전사를 증년까지 받아 들이지 못했다"고 말하고 "돌아가신 형님 인적사항 관리가 잘못되어 수년 동안 확인하는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양상구 동계면장은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하여 산화한 영령들을 생각하고 명복을 비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면서 위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고 황의완 묘지는 현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봉황인재학당, 하반기 수강생 모집

임실군의 혁신교육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봉황인재학당이 올해 두 번째 수강생을 맞이한다. 임실봉황인재학당은 7월 3일부터 4일까지 2018년도 하반기 수강생 선발' 응시원서를 접수받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봉황인재학당은 임실군을 선도할 미래인재교육의 산실로, 2018년도 하반기 선발인원은 ▲ 중학생 1학년 50명 ▲ 2학년 50명 ▲ 3학년 50명 등 총 150명이다. 올해 1월 개원한 봉황인재학당은 개원 전부터 관내의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상반기에 선발인원을 150명으로 한정했으나 접수 희망자가 대거 불리면서 180명으로 증원되어 운영되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와, 봉황인재학당에 선발되지 못한 차순위 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 중학생 60명과 ▲ 예비중학생(초등학교 고학년) 40명을 7월 중 별도 공고 후 선발하여 관내 학원에

서 수강할 수 있는 '학원위탁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봉황인재학당은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교육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의 인재를 중학생 단계부터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한 공립교육원으로 임실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원이후 5월 치러진 각 중학교 중간고사에서는 주요 과목인 국영수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이 지난해 기말고사와 비교해 대폭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는 평가였다. 봉황인재학당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충학습을 받고 후 수업을 통해 진행되고 일반교과 수업을 비롯 인성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까지 진행되는 만큼,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매년 데이트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고 있으나, 피해를 당했음에도 폭력이라는 인식을 못하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6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이러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실경찰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 플래카드 게시 및 경찰서 홈페이지 배너 게시, 순찰 근무 중 대민 홍보 등 맞춤형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능 합동으로 데이트폭력 TF팀을 새롭게 정비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힐링여행 팸투어 추진

순창의 치유음식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힐링여행 팸투어가 여행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상품화에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번 순창힐링여행 팸투어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여행사 대표, 미디어 및 학계 등으로 구성된 한국관광클럽 회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순창의 자연에서 명상과 치유음식 등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날인 29일에는 순창의 대표 힐링관광지 강천산 명상 산책이 진행됐다. 강천산 산책길은 약 5km 구간 황토에 모래가 잘다져 맨발로도 산책할 수 있는 길로 유명하다. 참가자들은 병풍폭포에서 구장군 폭포까지 계곡을 따라 나무가 빼곡한 숲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명상에 빠져 들었다. 저녁은 순창의 치유농장에서 펼쳐졌다. 순창에는 농업과 치유를 연계한 1개 치유농장이 운영 중이다. 이번 팸투어단은 그중 하나인 풍산면의 가이아농원 미니리치유푸드를 맛보며 자연 그대로의 먹거리에서 마음의 휴식을 얻었다. 또 저녁에는 유등면의 한옥민박 초연당에서 모닥불과 별빛을 보며 음악과 함께 명상에 잠기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30일에는 아침산책 및 섬진강 안개명상 일출명상이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